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안고 있는 김혜자 씨.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김혜자 지음 오래된 미래 펴냄 9천9백원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은 온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은 스크린의 요정이었다. 하지만 세 번의 이혼으로 사랑했다고 믿은 남자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던 불행한 가정사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말년에 멀리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병들고 굶주린 아이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의 멋진 인생 회향 때문일까. 오드리 햅번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다.

“세상의 불평등과 모순에 분노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한 끼의 밥이라도 더 먹이는 것이 급선무”

‘전원일기’의 어머니로, 연극 ‘셀리 발렌타인’의 여주인공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살아온 탤런트 김혜자 씨도 바로 삶의 의미를 세계 곳곳에 산재한 빈민국의 버려진 아이들에게서 찾았다고 한다. 이번에 그녀가 최근 출간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1992년 국제구호단체인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 땅을 밝은 이레 에디오피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르완다, 방글라데시를 거쳐 아프리카니스탄까지 10여개국에서 만난 이들의 위험하고 비참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김 씨의 난민 봉사는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MBC-TV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끝



고통받는 이 아이들을 두팔 벌려 꼭 안아주세요

김혜자 씨가 에디오피아의 아마나주볼로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

내고 딸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준비중이던 92년의 어느날 월드비전 한국지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아프리카를 함께 방문하자는 제의였다. ‘연기 9단’인 김 씨는 오드리 햅번이 주연을 맡은 영화 ‘장원’에서 본 아름다운 아프리카를 기억하며 즉시 가겠다고 수락했다.

그러나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프리카는 영화에서 본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다. 15인승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타고 에디오피아 아마나주볼로에 내렸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가난과 전쟁으로 생긴 병들고 굶주린 부녀자와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한평생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인일하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쏟아졌다.

그때부터 김씨는 해마다 수십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새우잡을 하며, 때로는 경비행기로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사막을 곡예하듯 넘었다. 단돈 1백원이 없어 2-3일씩 굶는게 예상되었던 케냐 소녀 예꾸아무, 영양중독을 얻어 먹기 위해 갓난아기 동생을 들쳐



단돈 1백원이면 어린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김혜자 씨가 케냐의 어린이들과 활짝 웃고 있다.

업고 자동차로도 40분 걸리는 먼 길을 걸어오던 소말리아 소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반군 대장의 아이와 정부군 대장의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던 열여덟 살의 레베카 등 고통받는 부녀자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12년 동안 계속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김씨는 평소 상상하지 못했던 비참한 현장을 무수히 목격한다. 지참금 때문에 딸을 낳으면 독초를 먹여 세상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된 아이를 숨지게 해야 하는 비정한 엄마들, 아버지의 50달러 빚 때문에 노예가 돼 하루 종일 일당배를 팔아야 하는 눈이 커다란 소녀, 먹을 게 없어 돌산에서 자라는 시금치 비슷한 풀을 뜯어먹고 입술과 얼굴까지 초록색으로 변한 아이들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김씨는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 관심을 촉구하고자 1년 3개월동안 방송활동을 중단하면서까지 글로 옮겼다. 이들의 삶이 현실이 아닌 드라마이기를, 그것도 연속극이 아닌 단막극 이기를 바라며 쓴 기록이기에 이 책은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

세상의 불평등과 모순에 분노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한 끼의 밥이라도 더 먹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그녀의 주장은 평소 그의 연기에 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넉넉한 어머니의 마음이다.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와 눈빛이 오히려, 연기를 때릴 제의하곤 할 수 없는 허무함에 시달렸던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그녀의 진솔한 고백이 진실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눈을 빌려주고 싶습니

다.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두 팔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이 책에서 토로한 김씨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난한 아이들을 찾듯 거라고 말한다.

화려한 미사여구와 형용사로 중무장한 문학적인 요소는 좀체로 찾아볼 수 없지만 진솔한 감정을 투박하게 그대로 전달해서인지 구구절절 봉사행을 실천하고픈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 만든다.

현재 소말리아, 베트남, 인도 등지의 어린이 50여명에게 매월 2만원씩 후원하고 있는 김씨는 이 책의 인쇄 전액도 세계 각국의 불우 어린이 50여명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 “내가 만일 비라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웃아라면 세상의 울퉁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먼저 갈 겁니다.”

▲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도울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면 여전히 그들을 도울 힘이 내게 남아 있음을 나는 압니다.”

▲ “소망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동으로써 얻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한국사 1, 2, 3

이덕일 지음 | 휴머니스트 펴냄 | 각권 1만6천원

학생들은 국사를 싫어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역지로 국사책을 펴놓고 어디에다 밑줄을 치고, 무슨 색깔로 별표를 그려야 하는 지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국사 과목은 공포의 대상 그 자체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난 첫 수업 때 한반도 지도에서 백두산의 위치를 물어본 후, 압록강과 두만강의 위치를 구별시켰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이잖아. 백두산에는 천지가 있지? 그럼 물은 어디로 흐르겠어? 당연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산에서 바다로 흐르겠지? 따라서 백두산 앞에서 흐르는 강은 압록강이고, 백두산 뒤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이야.”

여기저기에서 국사 암기의 비법을 전수받았더라 학생들은 찬탄해 마지않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국사 수업은 <살아있는 한국사>의 표현을 빌리면, ‘죽은 뼈다귀의 이름 외우기’에 다름 아니다. 역지로 국사의 단순 사건들을 적당히 썰어 맞춰 학생들이 암기하도록 좋게 숨겨 부린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나한테 배운 학생들이 <살아있는 한국사>를 읽어 볼까봐 솔직히 두렵다. 그만큼 이 책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만 한편 불쌍이런 놓지 못할 만

역사서가 지루해? 편견 버려!

읽고 보고 느끼게 하는 통사로 살아 꿈틀

큼 매력적이다. 모두 세 권으로 각기 300쪽이 훌쩍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지만, 곳곳마다 넘쳐나는 사료와 지도, 삽화는 읽는 통사의 지루함을, ‘읽고 보고 느끼게 하는 통사’의 뿌듯함으로 바꿔 버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느낌은 “식민사학이라는 가시뿔을 제거하고 우리 선조들의 역동적인 대륙성과 해양성의 조국(疆國) : 나라를 세움) 정신을 현재에 복원하고 싶다.”라고 적은 서문에서부터 시작된다.

교과서에 갈려 있던 내에게는 무엇보다도 30개의 주제 중에서 ‘수수계기의 왕국, 가야를 찾아서’, ‘고대 한일 관계의 이해’, ‘대륙사의 연장, 발해사’ 등이 눈길을 끈다. 기껏해야 두·세 페이지 분량에 말라 비틀어져 있던 역사가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조반정은 전란 극복에 힘써야 할 상황에서 발생한 시대착오적인 쿠데타였다. 반정체제는 쿠데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송명 반정(崇禎反瀋) 정적으로 급격히 선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불렀다... 조선의 멸망은 비극이었지만 더 큰 비극은 인조반정 이후 약 300여 년간을 집권해 온 노론이 국망(國亡)에 책임을 지는커녕, 오히려 일제에 협력해 지배층의 지위를 온존했다는 데 있다. 노론이나 어느 누구도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았다. 지배층 중에서는 그나마 야망이었던 소론과 재야 남인들 중 일부만이 독립운동에 나섰다.”란 구절에서는 역사의 현재성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치장한 올해의 7차 교육과정 수정 시행에서 11개의 사회 탐구 과목 중 국사 과목은 학생들에게 암기할 것이 많다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국사에 대한 냉대와 무관심이 학생들을 넘어 사회로 전파될까봐 무척 두려운 요즘 그나마 이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삼는다. ‘언제 나는 학생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심어 줄 수 있을까?’라는 영원한 화두를 품은채.

김정수씨를 추천하고 국사담당 교사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필광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인클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